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3분 묵상

동반자

김영문 브루노 신부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
 여럿이 웃고 축하하고 기뻐하면 모두가 즐겁다
 슬픔을 서로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혼자만의 괴롭고 깊은 아픔을
 과연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
 슬픔에 안타까운 얼굴로 다가와
 함께 걱정하고 아파한다지만
 과연 반으로 줄어드는가

모든 것이 부담스러워
 홀로 슬픈 시름과 걱정 중에 있는 사람
 병중에 있는 이
 죽음을 앞둔 이들은 외롭다
 오직 주님만이 동반자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11/01/2025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기부 금액 - \$ 40,300

현재 참가 인원- 91명



본당 설립 50주년 기금 모금 현황

<10/12>

조혜원 히야친타, 한정순 켄마, 서순석 테클라,
 정명자 데레사, 이계숙 마리안나, 박철균 베드로,
 조성욱 돈보스코, 박인순 레지나, 이은정 조지아,
 이서영 안젤라, 문소정 헬레나, 홍소영 카타리나,
 조희성 바오로, 안신자 엘리사벳, 이진만 하상바오로

모금 총액 : \$3,840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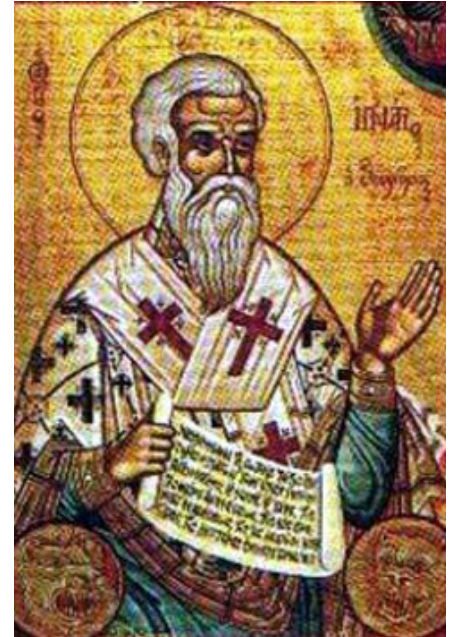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가톨릭’이란 말을 처음 사용
이단에 빠지지 말 것을 권고
‘순교는 주님과 일치’ 강조**



“불도 좋고 십자가도 좋고 맹수의 무리도 좋으며, 뼈를 비틀고 사지를 찢어도 좋으며, 팔다리를 자르고 온몸을 난도질해도 좋습니다. 이 세상의 목표도 지상의 모든 왕국도 저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저에게는 더 낫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이며,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이제 출산의 고통이 저에게 가까이 왔습니다.”(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서간 중)

클레멘스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바오로의 제자였고, 안티오키아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주교였던 이냐시오(Ignatius Antiochenus, 35?~107)는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 시대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한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안티오키아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일곱 편의 편지를 썼다.

스미르나에서는 에페소, 마네시아, 트라리아, 로마 등에 편지를 썼고, 스미르나에서 로마로 가다가 트로아스에 체류하면서 필라델피아와 스미르나 교회, 폴리카르푸스 주교에게 스미르나에서 보여준 친절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순교를 향해 가는 길에서 그가 남긴 서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싶은 사랑의 애절한 호소’였고, ‘하느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이 본받음은 수난과 죽음에까지 가야 한다’는 절절한 신앙의 표현이었다.

이후 그는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간절히 바라고 각오했던 죽음을 당했다. 에우세비우스,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등 후대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로마 서간 4,1의 “나는 밀알, 맹수의 이빨에 갈려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하느님의 밀알이다.”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확실히 맹수

들에 의해 순교했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어 맹수형으로 순교했다는 것이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다. 순교록들에 의하면 그의 뼈가 신자들에 의해 안티오키아로 옮겨졌다고 전해진다.

학자들은 그의 서간과 관련하여 “치명을 위한 열망으로 재촉받는 마음의 고통”을 이토록 절실히 표현한 예는 그리스도교 문학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또한 2세기 초엽의 교회 면모를 소개하는 것과 함께, 유대인이 아닌 소위 이교도의 세계에 심겨진 그리스도교회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덧붙인다. 이런 면에서, 특히 초대 그리스도교에 있어 안티오키아의 위치를 고려할 때 이냐시오는 후대 교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증인’으로 기록된다.

폴리카르푸스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선배 주교로서 후배 주교에게 사목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와 덕을 가르쳐 주었으며,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및 다른 다섯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들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고 교회 장상들에게 순명하라는 당부를 담았다.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느님의 구속 사업이었다. 내 안에, 또 신자들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고 실현되는 그리스도의 현존이었다. 즉 하느님은 세상과 인류를 죄의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구원 역사에서 예언자들은 메시아를 위한 준비 과정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시킨 분으로 설명했다.

순교를 그리스도께 대한 불 붙는 사랑, 그분과의 완전한 일치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순교를 성체 신비와 연결시키는 면도 눈길을 끈다. 이냐시오는 자신이 ‘하느님의 밀’, ‘깨끗한 빵’이 되는 것으로 밝혔는데, 밀이 맷돌에 갈려 가루가 되고 빵으로 만들어지듯 순교로써 성체 신비에 동참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영성에 대해서는 “평소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사랑의 신비를 너무나 잘 깨닫고 묵상하였기 때문이다.”라는 풀이가 따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냐시오는 ‘가톨릭 교회’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교부이다. 그는 주교의 권위를 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가톨릭 교회가 존재하듯, 주교가 있는 그곳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여기서의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과 사랑의 일치를 뜻하며, 그것은 곧 지역 교회 간 유대를 지칭하는 ‘하나인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톨릭’이라는 표현은 폴리카르푸스에 와서 더 풍부한 뜻을 지니며 ‘참된 교회’로 이해되었다.

학자들은 이냐시오가 전한 가르침의 핵심을 ‘일치’로 정리한다. 즉 하나이시며 동시에 세 위격이신 하느님의 일치,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 위격의 일치, 그리스도인과 영성 생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와와의 일치,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일치 등이다.

‘그리스도교 문헌학의 진주’로 남아 있고 고대 교회사에서 이루어진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꼽히는 그의 편지들은 죽음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느님을 누리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냄으로써, 세속화되어 가는 오늘날 교회와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현대 사회 안에서 ‘하느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또 ‘그리스도교가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하느님을 얻을 수 있는 신앙임’을 외치고 있다.

공지 사항

1 미사 안내

- 11/22(토) : 저녁미사는 구역판공 관계로 없습니다.
 - 11/27(목) : 추수감사절 미사는 오전 10:00 봉헌됩니다. 미사가 끝난 후에는 추수감사절 음식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미사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신앙 체험 수기 모집

- 50주년 기념 책자 발간을 위해 시애틀 성당 신자 여러분의 신앙 체험 수기를 게재하고자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분량 : 2페이지(스페이스 포함 1400자/페이지 당), 사진 1장
 - 마감 일자 : 11/30/2025
 - 문의 : 편집 위원장 김현숙
(206)375-5959, kimhelen6909@gmail.com

3 구역의 날 & 구역 음식 봉사

- 일시 : 11/9(주일) 교중미사 후
 - 음식 봉사 : Bellevue/Mercer 구역
 - 메뉴 : 만두국
- 각 구역원들은 모두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4 구역장 회의

- 일시 : 11/16(주일) 오전 11:30
 - 장소 : 110호 교리실
- 모든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당 주방 재물 조사 및 사용 안내

- 성당 주방의 재물 조사를 진행합니다.
- * 집에 보관하고 계신 성당의 주방 기구 및 식기들이 있다면 성당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 * 성당 주방을 사용하실 때에는 성모회장님께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주방 사용 후에는 뒷정리 청소를 깨끗이 해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그 즉시 쓰레기장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6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 안내

- 성당의 쓰레기장 재활용 분리 수거장에는 비닐 쓰레기 봉투를 포함한 모든 비닐류가 들어가는 안 됩니다. 또한 뚜껑은 반드시 꼭 닫혀 있어야 수거 시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활용 분리 수거함 사용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차장 안내

-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선을 준수하여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Catholic Youth Convention

- 시애틀 대교구에서 개최하는 가톨릭 청소년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5(토) 9:00 AM - 6:00 PM
 - 장소 : Saint Martin's University
 - 주소 : 5000 Abbey Way Southeast, Lacey, WA 98503
 - 참가비 : 학생 \$65, 성인 \$30
 - 신청마감일 : 11/9(주일)

9 SHOEBOXES OF JOY

- 대건회에서는 2025년 성탄 프로젝트로 'Shoeboxes of Joy'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대건회에서 정성껏 담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Donation : 빈 신발 박스, 각종 용품 (청소, 생활, 위생 용품 등), 보존 식품류
- 장소 : 성당 사무실
- 문의 : 대건회장 우인영 요셉
(404)405-5574

입당송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나는 보았네.

제1독서..... 예제 47,1-2.8-9.12
〈성전 오른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았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두 구원을 받았네(따름 노래 “성전 오른쪽에서”).〉

화답송

◎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제2독서 1 코린 3,9-11.16-17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13-22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영성체송

너희는 영적인 집을 짓는 살아 있는 돌이니, 거룩한 사제단이 되어라.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67

예물 준비 성가 : 216, 219

성체 성가 : 165, 170

파견 성가 : 69

죽은 모든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11/2)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31명	57명	220명	194명	40명	542명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웁원 마르피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용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겐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원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atering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폴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목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11/20/25)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12/20/25)

제30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맞이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지역

주교회의와 주교 평의회 메시지

기후 정의와 공동의 집을 위한 호소

생태적 회개와 변화, 그리고 잘못된 기후 해결책에 대한 거부

개요

희망과 생태적 회개의 길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와 정의롭게 통합 생태론을 실천하라는 레오 14세 교황의 호소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는 깊은 생태적 회개를 요청한다.

「찬미받으소서」가 반포되고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된 지 10년이 지났고, 시급한 필요성이 있음에도 세계 각국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교회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과학계와 시민 사회,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진실하게 한결같이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I. 우리의 요구

기후 위기는 시급한 현실이다. 2024년에 지구 온난화가 1.55°C 상승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의, 존엄, 우리 공동의 집 돌봄이라는 실존적 문제**이다.

과학은 명확하다. 재앙적인 결과를 피하려면 지구 온난화를 1.5°C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우리는 이 목표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남반구와 미래 세대들이 이미 그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착취와 불의를 영속시키는 '녹색' 자본주의, 기술 지배주의, 자연의 상품화, 채굴주의와 같은 잘못된 기후 해결책을 거부한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형평성: 부유한 나라들은 남반구에 대한 빚을 더 이상 늘리지 말고 공정한 기후 금융으로 자신들이 진 생태적 빚을 배상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오세아니아 지역의 손실과 피해를 만회하여야 한다.

정의: 경제적 탈성장을 촉진하고 화석 연료를 폐기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신규 기반 시설 구축을 중단하고 이를 통하여 이득을 얻는 자들에게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여, 기후와 자연 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공동체들을 포용하고 우선시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

보호: 토착 민족들, 생태계, 빈곤한 공동체들을 수호하고, 여성과 소녀, 새로운 세대들의 더 큰 취약성을 인정하며, 기후 이주를 정의와 인권의 도전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II. 교회의 약속

교회는 말로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기후와 자연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수호할 것이다.

우리는 통합 생태론을 **교육**하고, 연대에 기반한 경제, 곧 「찬미받으소서」의 '행복한 절제'와 조상들의 지혜인 '행복한 삶'(Buen Vivir)에 기반한 경제를 증진할 것이다.

우리는 협력과 연대의 증진을 위하여 남반구 나라들 사이에 대륙 간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 정의 관측소(Climate Justice Observatory)를 통하여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의

결과를 점검할 것이다.

우리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실천가들이 연대하여 위기에 대처하는 역사적 연합으로 **초대한다**.

III. 행동 촉구

우리는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파리 협정」을 이행하고, 기후 위기의 시급성에 상응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를 이행한다.

이윤보다 **공동선을 우선시한다**.

사람들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지구에서 지속 가능한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회복적 모델을 지향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인권에 기반한 기후와 자연 정책을 증진한다.

윤리적이고 탈중앙화된 적정 기술의 해법을 공유하고 이행한다.

2030년까지 산림 파괴 제로화(zero deforestation)를 달성하고 중요한 수륙 생태계를 복원한다.

지구의 안녕을 위하여 우리 북반구와 남반구의 인류가 하나 되어 「파리 협정」과 같은 민주적 다자 간 과정을 강화하고 협력과 대화를 통하여 신뢰를 재건하는 데에 힘을 합친다.

종합 의견서

이 공동 호소문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지역 주교회의들과 주교 평의회들이 서명하였다. 정부 지도자들과 그 사절들에게 전하는 이 공동 호소문은 **인류와 지구의 선익을 위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의 야심 찬 이행을 위하여** 일하도록 그들에게 촉구한다. 이 공동 호소문은 교회와 일반 대중에게 “생태적 회개”(프란치스코 교황)를 실천하고 “증오와 폭력과 편견, 다름에 대한 두려움, 지구 자원을 착취하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소외시키는 경제 구조가 불러일으킨 너무도 많은 상처들”(레오 14세 교황)을 다루도록 요청한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지역의 가톨릭 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산과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와 「하느님을 찬미하여라」(Laudate Deum), 그리고 정의, 평화, 예언자적 용기로 통합 생태론을 실천하라고 하신 레오 14세 교황의 호소에서 영감을 받아, 인간 존엄, 평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기후와 사회적 생태적 정의, 우리 공동의 집 돌봄에 대한 확고한 투신의 표현으로서 이 문서를 발표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합의 등 재앙적 결과를 피하려면 지구 온난화를 1.5° C로 제한해야 한다는 과학적 합의를 인식하여, 우리는 채굴주의, 기술 지배주의, 자연의 상품화에 기초한 현재의 개발 모델을 변화시키는 생태적 회개를 통한 평화를 호소하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드높인다.

제30차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우리 누이요 어머니인 지구를 포함하여 가장 취약한 이들을 우선시하며 인간 존엄, 공동선, 연대, 사회 정의에 기반하여 행동을 전환하도록 요구한다.

I. 근본 원칙

지구 온난화가 2024년에 1.55°C에 도달하고 사막화가 이미 5억 명의 남반구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때, **기후와 자연 시스템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주지 않게 막으려면 즉각적인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준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생명체들이 살기 좋고 번영하는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세대 간 정의를 수호한다.**

기후 위기는 폭력을 조장하는 가치들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 **해법은 인간 중심적 관점을 뛰어넘어 통합 생태론과 평화 건설의 근본 측면들인 정의, 생태론, 자연의 권리, 인간 존엄성을 포함해야 한다.**

통합 생태론은 민족들의 착취와 환경 파괴를 영속시키는 **기술 지배적 착취적 패러다임을 극복하여 경제와 발전 모델에 구조적 변화를 제기한다.**

북반구가 주된 원인을 제공한 기후변화는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남반구 국가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후 정책들은 평등에 기초하고 공통적이면서도 차등적인 책임과 개별 역량에 기초해야 한다.**

여성과 소녀들은 특히 부당하게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남반구의 여성과 소녀들은 식량 불안에서 폭력에 이르는 여러 문제에 맞서 싸우며 환경 수호자로서 삶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해법들은 지역민들과 공동체들의 세계관과 관습을 포함하고 침해당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해법들은 오직 기술적 재정적 조정에만 국한될 수 없다.

II. 약속과 책임

우리 사명의 중심에서, 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에 전념하며 이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탄소 저감 계획과 공공재의 금융화에 맞섬으로써 자연의 금융화와 상품화를 통한 ‘잘못된 기후 해결책’을 **거부한다.** 이러한 잘못된 기후 해결책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부담을 이에 대한 원인 제공자가 그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며, 위기의 원인

을 다루는 대신에 지구와 지구상의 생물들과 사람들의 착취를 영속시킨다.

우리는 제30차 당사국 총회와 그 밖의 회의 결정들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업 논리보다 가난한 이들을 우선시하게 하여 기후 정의를 **수호한다.**

우리는 1.5° C라는 목표에 따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화석 연료의 폐기를 **요구하고** 온갖 새로운 탐사, 착취, 기반 시설을 거부한다.

우리는 공동체와 생태계를 희생시키는 ‘녹색 자본주의’, 광업, ‘에너지 단일화’를 **규탄하고**, 지구에서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조건에 적합한 근본적인 경제적 전환을 요구한다.

우리는 식량 안보와 물 주권과 긴급 상황 관리와 토지 계획에 대한 지역적 전략을 통한 손실과 피해의 회복, 완화와 적응을 위한 자원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강조하여 공동체들의 저항과 회복탄력성을 **뒷받침한다.**

우리는 수륙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열쇠인 토착민들과 전통 공동체의 영토 주권을 **수호한다.**

우리는 농생태학, 새로운 경제와 온전한 인간 발전을 촉진하며 연대, 사회 정의, 협력, 지구 위험한계선과 민족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장려한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집에 대한 돌봄, 통합 생태론, 인권, 지속 가능한 환경, 대중 연대 경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우리는 인식을 개선하고 희망과 공동 행동의 담론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술과 문화와 매체에서 영성을 **기른다.**

우리는 당사국 총회의 공약과 남반구에서 그 이행을 관찰하고 불이행을 규탄하기 위하여, 아마존 교회 협의회를 통하여 기후 정의에 관한 교회 관측소를 **설립할 것이다.**

〈다음주에 계속〉